

**약속 (로마서 9:6-18)**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한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귀신이 오는가 천사가 오는가가 중요하다. 그 때 인생의 모든 것이 결론나는 순간이다. 아무리 성공하고 살았어도 그 때 귀신이 찾아오면 소용없다.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하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상관없다.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영원한 지옥으로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든지 이 시간을 당하게 되어 있다. 지금 태어나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없이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다. 만일 답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에 대해 아주 선명하게 설명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1. 약속**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되 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에게서 난 자가 네 씨라 불릴것이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두명이 있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었다. 하나님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다. 8절에 조금 더 설명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육신의 피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그때 사라는 나이가 90이 넘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다.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포기하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웃었다. 안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육신적 아들에 불과한 이스마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없는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맘대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서 이 약속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약속이 온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약속이 먼저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홀히 여기고 싶은 자에게는 공홀히 여긴다는 것이다. 이유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완악한 대로 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완악하다. 이유는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홀을 안 주셔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두 번째는 약속의 구원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었다.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때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심지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리고 12-13절에 보면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하심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라기 1장 2-3절과 같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어머니의 태 중에 있을 때 결정되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방법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태중에 있을 때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90% 이상의 사람이 선하게 살면 구원받고 악하게 살면 지옥간다고 생각한다. 이 종교사상을 이 말씀 하나로 끝내버리는 것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구원은 끝내버리는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되느냐면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는 사실이 서도록, 그것이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태중에 있을 때 결정내렸다는 것이다. 태중에 있을 때 결정났기 때문에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본래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을때에는 그것에 대해 말도 안한다. 왜냐면 근본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다. 아예 그런 생각이 안든다. 그러나 지옥에 가보면 알 것이다. 왜 나는 구원을 안 해줬는가?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잘해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포인트는 행위였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런데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 받아야 한다.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은 구약성경에 대한 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입병못하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물을 것이다. 너는 에서자손이나 야곱자손이나? 당연히 야곱자손이라 할 것이다. 자기들 조상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결정났다는 것이다. 믿는 유대인들도 아직 구약에 많이 잡혀 있다. 과도기니까 이해할수도 있다. 당시에 일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전부 행위를 가지고 말한다. 선하게 살면 구원이다. 완벽하게 죄 하나 없게 살았다 해도 원죄 남아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안식일 지키는 이런것도 행위 중심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데에 대해서는 관심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들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 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6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네가지가 나온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둘째는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기쁘신 뜻대로. 왜 그러셨는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아주 명확하게 써 놓으셨다. 이것이 우리

의 구원이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16절이다. 모든 것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다. 원한다고 구원 받는 것 아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원한다고 받는 것 아니다. 달음박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면 되는 것이고 안주면 안되는 것이다. 한가지 더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17절에 바로이다. 출애굽기 읽어보면 나온다. 바로는 참 억울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꺾는 것이다. 그래서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언약이 뭔지 보이기 위해 너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죽는 것이다. 바로의 입장에서 억울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저런 문제가 막 생기면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속은 것이다.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연결되어 구원에 관련하여 해석을 하면 그것은 틀렸다. 속은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뒤집을수 없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 내가 만일 이 구원을 가져가시라고 하나님 앞에 난리를 쳐도 그 자리에 있다.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에서는 억울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생각도 없을 것이다.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약속이 있어야 하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누가 이것을 하느냐 하니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태어나기 전에 결정하셨고, 창세전에 결정하셨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유가 뭐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 2. 전도자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다. 시대적인 복음을 주신 것은 이것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세우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렘넌트들도 많이 세워서 대를 이어서 이 운동을 하라는 것이다. 전도자는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자기 구원을 먼저 누리야 한다. 구원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누림이 된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나타난다. 이 힘으로 내게 있는 흑암을 먼저 꺾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창세전에 무엇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결정되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우리가 뭐라 하겠는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단순한 축복 정도가 아니라 권세이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이 저주에서 나온다. 흑암의 모든 어두운 곳에서 그 사람이 나온다. 복음을 계속 이야기 하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진다. 우울증은 마음이

어두운 것이다. 복음을 계속 이야기 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그래서 전도는 이 약속을 가진 자를 찾는 것이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주용하다.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구원하기로 계획한 자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이 그냥 들어간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 사람을 사단의 저주에서 건지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받은 이 구원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 사실은 의미없다. 죽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18차 자체캠프중이다. 평소에도 항상 전도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겠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미에 안디옥 교회라는 기도제목 가지고 있다. 사도바울의 전도가 시작된 안디옥 교회 아닌가? 미국과 남미에 플랫폼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마음에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내가 증인이 되려면 먼저 내게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가? 답을 잡고 살면 증거가 온다. 이것을 잘 안해서 그렇지, 언약을 잡고 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산다. 언약을 잡으면 증거가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다. 이 언약이 답이라 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을 잡는 것이다. 바깥으로 보면 사는 형태는 다 같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잡는 것이다. 하나님 눈에는 원죄가 모든 것의 원인이고 사단이 원죄의 원인이다. 중요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을 죽이지 않고 사단을 죽이겠다고 한 것이다. 늘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들어와서 발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짜로 이것이 언약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세가지 직분,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응답과 증거가 온다.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그냥 주로 산다. 말씀 들으면 은혜 된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보통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산다. 조금 사명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아주 잘하는 사람같다. 그리고 거기서 거의 만족을 한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안타깝다. 언약을 딱 잡아야 한다. 이것이 잘 안되어져도 계속 고백을 하면 깊어진다. 기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3직을 고백해보라.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고백을 해보라. 이걸 계속 해보라. 어떤 기도보다도 더 힘이 있다. 이것이면 된다고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것 아니다. 우리는 다른 것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을 안하는 사람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3직이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3직, 이것을 답으로 잡고 마음에 담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하간,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답이고 원인은 원죄이다. 더 원인은 사단이다. 이 머리를 깨지 않고는 저주에서 못 나온다. 이 머리를 깨는 답이 그리스도 3직이다. 그러면 끝난 것이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계속 들었다. 누구든지 반드시 이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승리하기 바란다. 간단하고 쉽다. 더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